



제8회 라이팅 커뮤니티 서밋에 참석한 지도자들이 백악관 앞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빛을 비추라” 워싱턴DC에서 아태계 지도자들 한 목소리

KCCD 주최 서밋에서 미국 위한 아태계 신앙 공동체 역할 논의

미국 내 아시아와 태평양 제도(Asian Americans and Pacific Islanders) 출신 크리스천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기독교 가치관으로 어떻게 미국을 변화시키고 커뮤니티를 섬길지 의견을 모았다.

KCCD(한인기독교커뮤니티개발협회)가 제8회 라이팅 커뮤니티

서밋(Nation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을 “Shining Out Light - Building Our Leadership and Future Together”란 주제 아래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열었다. 이 서밋에는 한인교회 지도자들은 물론 미국 사회를 이끌고 있는 비아시안 정계, 재계 지도자들도 참석해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이번 서밋은 아태계 신앙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에 주목하면서도 아태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를 나누었다. 첫날 참석한 마크 김 버지니아 주 하원의원도 “우리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앞으로 3일 동안 보다 강한 신앙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로 네트워크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일정 동안 참석자들은 리셉션 행사, 조찬 기도회와 예배, 의회 방문, 참여자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킹 시간에 참여했다. 이 행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백

악관 고위 지도자들과의 면담이다. KCCD는 지난 제7회 행사에서 처음 백악관에 초청됐으며 올해도 면담이 성사됐다. KCCD의 임혜빈 회장 등은 이 시간을 통해 한인들은 물론 아태계 크리스천들의 헌안들을 고위 공직자들에게 전달했다.

이윤형 기자

## 미국 내 이슬람·무신론은 증가하는데 기독교는 급감

퓨리서치센터 종교 지평 설문조사 결과 발표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비종교인과 타종교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퓨리서치센터의 “미국 종교 지평의 변화” 조사 결과 기독교 대국이었던 미국의 기독교 인구는 2007년 78.4%에서 2014년 70.6%로 감소했다. 이 조사는 3만5천명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 개신교 가톨릭 모두 감소 추세

같은 기간 개신교인은 51.3%에서 46.5%로 줄어들었다. 그중 복음주의 개신교는 26.3%에서 25.4%로 줄어들어 그나마 가장 적은 감소율을

보였지만 주류 개신교는 18.1%에서 14.7%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 미국에서 소위 메인라인(mainline)이라 부르는 주류 개신교는 연합감리교회(UMC), 미국침례교회(ABC), 복음주의루터교회(ELCA), 미국장로교(PCUSA), 미국성공회(TEC) 등으로, 진보적 성향을 띠고 있다.

가톨릭도 23.9%에서 20.8%로 감소했다. 2007년 0.6%였던 정교회, 1.7%였던 몰몬교는 각각 0.1%씩 감소했고 특이하게 여호와증인만 0.7%에서 0.8%로 증가했다.

### 이슬람은 2배 이상 성장

기독교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타종교는 성장 중이었다. 타종교인들

은 4.7%에서 5.9%로 증가했는데 이중 가장 큰 증가는 역시 이슬람이었다. 이슬람은 0.4%에서 0.9%로 2배 넘게 성장했고 힌두교도 0.4%에서 0.7%로 크게 성장했다. 유대교는 1.7%에서 1.9%, 불교는 0.7%에서 변화가 없었다.

무신론, 불가지론, 무관심 모두 증가 비종교인도 16.1%에서 22.8%로 급증했다. 이중 무신론자는 1.6%에서 3.1%로 크게 증가했고 무신론과 유신론을 모두 배격하는 불가지론자도 2.4%에서 4.0%로 증가했다. 특별히 관심이 없다는 사람도 12.1%에서 15.8%로 증가했다.

김준형 기자

## 100일째 감감 무소식

北 억류 임현수 목사 가족들 도움 호소

북한에 억류 중인 캐나다 국적 한인 목사 임현수(60) 목사의 가족들이 임 목사와 연락이 끊긴 후 100일이 지나는 동안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고 16일 CNN이 보도했다.

100일 동안 임 목사의 가족들은 그의 건강 상태나 무슨 혐의로 북한 당국이 임 목사를 체포했는지 듣지 못했다. 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캐나다 토론토큰빛교회의 리사 박 대변인은 “임 목사의 가족들은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으며 이웃 주민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

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임 목사가 가족의 뜻과는 달리 북한의 수용 시설에서 부활절과 환갑을 맞이했으나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파악할 길이 없다”며 “그와 통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통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7일 캐나다를 떠난 임 목사는 같은 달 30일 북한 나진에 도착했으며 이후 31일 평양으로 들어간 후 연락이 두절돼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당국도 그의 억류 사실은 시인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턴과 12가

최상의 호스피스 서비스를 사랑으로 제공합니다.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사, 소셜워커,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돌봐드립니다.  
 정부인증기관으로 환자분에게 금전적부담이 없습니다.  
 24시간 대기 서비스 제공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 박영신 간호부장  
 www.sierra-hospice.com Tel: (213) 380-1100 Cell: (213) 700-6989

WITH THE WORLD  
**코헨신학대학교(CUTS)**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제27회 학위수여식**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코헨신학대학교는 Vision 153 World Mission을 위해 세워진 대학교이며, 최종 목표는 Vision 153을 완성하여 기독교 UN을 설립하는데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27회 학위수여식을 거행코자 하오니 왕림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약도

**목표** Vision 153 World Mission  
**현재** 2015년 5월 29일 현재 전세계 109개국 코헨위성모체신학대학건설 (71% 완성)

**제 41차 코헨 국제 세미나**  
 주제 : Hebrew Thinking!  
 일시 : 2015. 5. 25-30  
 장소 : 코헨신학대학교 대강당

**제 27회 코헨 신학대학교 졸업식**  
 일시 : 2015. 5. 29 오후2시  
 장소 : 코헨신학대학교 대강당

법인이사장 Dr. Merilline Cohen, D.D.  
 법인총장 Dr. Ronald Vanderney, Th.D., D.R.E.  
 부총장 Dr. Carol Spanier, Ph.D.  
 국제총장 Dr. Gary G Cohen, Th.D., Litt.D.  
 대학원장 Dr. William Stinde, Ph.D.  
 박사원장 Dr. Vance Vanderney, Th.D.  
 행정학감 Dr. Sarah Kim, Th.D., Ph.D.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 (424)257-8171 / Fax :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E-mail : cohenuniversity@hotmail.com

# '편안한 임종' 돕는 호스피스 케어 세미나

## 비용부담 없고 유가족 위로 서비스 혜택까지



김성준 목사(시에라 호스피스 원목)가 '호스피스 세미나' 개최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환자에게는 편안한 임종을, 그 유가족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이 호스피스케어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한인 커뮤니티를 돕기 위한 '호스피스 케어 세미나'가 16일 오전 10시-12시까지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엘에이 한인타운 거주영어학교에서 진행됐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올해로 3회째이며 김성준 목사(시에라 호스피스 원목), 김은진 간호사(카이저병원 호스피스), 그리고 박영심 대표(시에라 호스피스 케어/H&M 호스피스 케어)가 차례로 나서서 호스피스 케어의 목적과 그 이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가졌다.

김성준 원목은 "19세기 경에만 해도 65세 이상의 생존율은 3%에 불과했지만 오늘날에는 13%까지 증가했다. 그 중 17%는 장기간 의료기관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나머지는 의료 양로센터나 간호보호기관에서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은 가족과 함께 집에서 편

안한 임종 맞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는 환자들의 소원대로 집이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돕는 서비스이다"라고 했다.

김은진 간호사는 "호스피스로 관장받은 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 순간순간 찾아오는 통증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며 "호스피스 케어는 치료가 아닌 증상완화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모든 간호가 환자 중심으로 24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환자가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심 대표는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크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메디케어나 메디칼 혜택을 받고 있다면 절대 비용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개인보험 가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환자가 현재 받고 있는 간병서비스나 소셜 혜택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기관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

호스피스 케어 혜택을 받게 되면 담당 간호사는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나 양로기관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환자를 보살피게 된다. 또 필요시에는 8시간 지속적으로 환자와 함께 하면서 간호보조 활동을 하게 된다. 물리치료나 언어치료도 받을 수 있고 모든 처방약과 의료용품 등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된다. 환자가 집에 거주할 경우에는 병원용 침대 등 필요한 병원의 료기기도 공급된다.

또한 환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신고 등 모든 법적 절차 및 장례 절차를 신속하게 대행해 준다. 뿐만 아니라 환자 사후 약 13개월간 지속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기도 하다.

대부분의 호스피스 환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불안감, 우울증, 분노, 절망감, 무기력증 등의 정신적인 고통도 크다. 이러한 영적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상담과 서비스도 제공된다.

호스피스 판정은 각종 암이나 치매 등 난치병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나 6개월 이하 시한부 환자가 주 대상이다. 그 외에도 노환 등으로 환자나 그 가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따라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시에라 호스피스 케어에서는 호스피스 케어에 관심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 과정을 끝내면 호스피스 케어 서비스 어느 기관에서나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문의는 전화 213-700-6989(박영심 간호부장)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 고교 졸업생 전원 美 명문대 합격

## 명문 기독교 사학, NCA 제16회 졸업식



NCA가 제16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12학년 졸업생들은 전원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다.

명문 기독교 사립학교인 새언약초중고등학교(New Covenant Academy, 이하 NCA)의 16회 졸업식이 지난 14일 오후 6시 교내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킨더 과정 10명, 초등학생 11명,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1명이 각각 졸업했다.

제이슨 송 교장은 "지난 16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특히 지난 2013년에 한인타운 한복판에 새 캠퍼스를 매입하고 기독교 교육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그는 "12학년 졸업생 전원이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킨더 과정의 생김 이래 첫 졸업자를 배출한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앞으로

도 신앙과 실력, 그리고 인성을 갖춘 참된 기독교 리더 배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CA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2학년 전원이 유엔, 코넬, USC, 휘튼, 뉴욕대 등 미국 내 명문 대학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뤘다.

NCA는 WASC 정식 인준 학교이며 IB(국제공통대학입학자격)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학비와 안전하고 가족적인 분위기가 특징이다. 특히 신앙과 열정을 갖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기독교 학교로 알려져 있다.

▷학교 주소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웹사이트 www.e-nca.org

▷문의 213-487-5437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제46회 학위 수여식이 거행됐다.

#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학위 수여식 12명 졸업생 배출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Californ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총장 Dr. Joshep Lomusio)의 제46회 학위 수여식이 지난 5월 16일 오후 4시에 가든그로브에 소재한 First Baptist Church에서 15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날 학위 수여식에서는 명예 신학박사 2명, 목회학 박사 5명, 목회학 석사 5명 등 총12명이 각각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편, 본교에서는 졸업식을 앞둔 교수진들과 졸업생들이 4박5일 일정의 크루즈 졸업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하였다.

선상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6차례에 걸쳐 특강 형식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신사도운동의 실제와 비평, 기타 현대 신학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 유익한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김준형 기자



찰스 김 회장, 이용규 전 회장 등 로터리클럽 관계자들이 가정상담소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 가정폭력 피해 여성 위해 사용해 주세요

5월 19일 LA코리아타운 로터리클럽이 한인가정상담소에 2,500달러의 기금을 전달했다. 이 기금은 가정상담소 내 가정폭력 피해자 모

임인 "라이프 비욘드"의 운영과 활성화에 사용된다.

가정상담소는 "이 후원금을 통해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워크샵을 제공하고 피해 여성들이 서로 격려하고 돕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213-389-6755

김준형 기자

제19차  
**1일 신약통독**

이번 휴일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하루에 신약 27권 완독

Memorial 휴일을 맞이하여 **신약 27권 260장 전 절을 하루에 통독**하는 집회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신약성경 전 권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통째로 우리 마음에 담겨질 때에 놀라운 감동과 새로운 깨달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처럼 맞이하는 휴일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과 육이 새롭게 활력을 얻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5년 5월 25일(월) 오전8시(시간엄수)

**장소** 헐리웃효순장로교회 (담임 김동원목사)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909)983-0994

**참가비** 30불 (식사 및 간식)

**강사진**

안성기 목사
 이화철 목사
 김동원 목사

**교회 찾아오시는 길**  
(213)268-3589

1101 S. Elden Ave. L.A., CA 90006  
올림픽경찰서 동쪽(11가와 엘덴이 만나는 곳)

주최: 미주요한선교단 (대표 안성기 목사)

후원: 갯스월연합교회 기독교일보 미주복음방송 헐리웃효순장로교회



KPCA 제40회 총회가 멕시코 칸쿤에서 성대히 열렸다. ©주님세운교회



WKPC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제39회 총회를 개최했다.

###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총회

KPCA 총회 개최, 총회장에 김종훈 목사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제40회 총회가 멕시코 칸쿤에서 2015년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열렸다. 미국, 캐나다, 중남미, 유럽, 호주, 일본, 뉴질랜드, 중동 등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21개 노회 462개 교회의 지도자 500여 명이 "이 시대에 소망을 주는 총회"라는 주제 아래 한 자리에 모였다. 12일 임원 선거에서는 총회장에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목사 부총회장에 유영기 목사(나성북부교회), 장로 부총회장에 박형주 장로(나성영락교회)가 당선됐다. 13일에는 오전 특강 시간도 마련됐다.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터키 난민 선교의 시급적 중요성과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 운동 등에 관해 1시간 가까이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 세계한인예장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

나성열린문교회에서 제39회 총회, 총회장은 국남주 목사

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WKPC)가 제39회 총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전진하는 교회"라는 주제 아래 나성열린문교회에서 19일부터 21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 부총회장인 국남주 목사(뉴저지새생명교회)가 총회장에, 이규보 목사(상록교회)가 목사 부총회장, 황경재 장로(나성열린문교회)가 장로 부총회장에

취임했다. 이번 총회에는 179명의 총대가 참석해 교단의 회무를 처리했으며 특히 수요일 저녁에는 "세계 선교의 밤" 행사를 통해 교단의 선교적 비전을 새롭게 했다. 이 교단은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로부터 2013년 5월 분리됐으며 2014년 5월 나성열린문교회에서 교단 이름을 WKPC로 변경해 총회를 열었다. 이어 2014년 10월과

11월 이 교단에 속한 대다수 회원들이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미주동부노회, 서부노회로 각각 가입했다. WKPC에 속해 있던 국제개혁대학교도 합동총회의 해외인준신학교가 되며 사실상 이 두 교단은 조직상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합동총회 임원들과 이 교단 선교회원 GMS의 임원들도 다수 참석했다. 김준형 기자



합동해외총회가 영생장로교회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 아래 총회를 열고 교단의 부흥을 외치고 있다.



해외합동총회가 제37회 총회 중 열린 헨더슨 크리스찬 대학 학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교연 제공

### 합동해외 총회장에 김혜성 목사 당선

제37회 총회 영생장로교회에서 개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해외총회가 제37회 총회를 19일 영생장로교회에서 열고 신임 총회장에 김혜성 목사를 뽑았다. 이 교단은 윤성원 목사가 총회장으로 섬기다 지난 2월 사퇴하면서 정완기 부총회장이 총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또 몇몇 노회가 해산되거나 교단을 탈퇴하면서 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도 미주에서는 남가주노회와 미주태평양노회만이 참석해 그 규모

가 상당히 줄었다 볼 수 있다. 이런 와중에 1979년 이 교단의 시초라 할 수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미주대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던 김혜성 목사가 다시 총회장에 당선된 만큼 이날 모인 회원들은 교단의 부흥과 갱신을 다짐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설교한 박창식 부총회장도 "모든 갈등은 죽지 않아서 발생한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새로워지자"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준형 기자

### 해외합동 제37회 총회장 피종진 목사

한미 동성에 입법 저지 위해 공동 노력

대한예수교장로회 해외합동 제37회 총회가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한 헨더슨 크리스찬 대학교 대강당에서 지난 5월 12~14일 개최돼 총회장에 피종진 목사를 선출하고, 한국과 미국의 동성에 입법화 저지를 위해 한미 연합기관 공동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4개 대회, 36개 노회의 총대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2일 오후 4시에 개최된 총회는 증경총회장 김동욱 목사(필라노회)의 사회

로 윤교진 장로(미주동부노회) 지도, 김진철 목사(해외노회) 성경봉독 후, 증경총회장 박요한 목사(서북노회)가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전3:21)"는 제목으로 은혜롭게 설교하였다. 이어 최낙신 목사(미기총 차기 대표회장), 전승현 회장(샬롯한인회), 나성균 목사(노스캐롤라이나 한인목사회 회장), 양병희 목사(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의 축사와 조도식 목사(필라델피아노회, 직전 총회장)의 인사말, 피종진 목사(필라노회)의 축사로 예배를 마쳤다. 동남부노회장 김영언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도 거행했다. 이어 열린 회무 처리 시간에 신임 총회장으로 피종진 목사를 선출했으며, 한국과 미국의 동성에 입법화 저지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한미연합기관과 공동대회를 하기로 했다.

또한 네팔의 김도림 선교사(동남부노회 파송)의 선교 보고로 지진의 폐허 속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제 37회 총회를 섬기게 될 임원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피종진 목사(필라노회) ▲부총회장 김진철 목사(해외노회) ▲서기 김영언 목사(동남부노회) ▲부서기 유도형 목사(뉴욕노회) ▲회의록서기 유모세 목사(일본노회) ▲회의록부서기 김종한 목사(시카고노회) ▲회계 윤교진 장로(미주동부노회) ▲부회계 노정균 목사(워싱턴노회) ▲상임총무 김경순 목사(워싱턴노회) ▲총무 임주창 목사(미주서부노회) ▲협동총무 김영관 목사(동북노회) 김영택 목사(한미노회) 윤근일 기자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Pueno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체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시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 이석철 교수의 신앙칼럼

# 5.21 원리



이석철 교수  
대전침례신학대학원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중심은 부부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부부보다 자녀와 부모를 더 중시해 왔다. 본국의 가정의 달 5월은 주로 어린 이남과 어버이날이 '장악'하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는 '부부의 날'이 있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부부의 날은 1995년에 권재도 목사가 시작한 '부부 주일'에서 비롯되었다. 그 후 '부부의 날 위원회'를 중심으로 발전한 이 운동의 결과로 2007년에 부부의 날이 법정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제는 '세계 부부의 날 위원회'가 발족되어 UN을 통해 부부의 날을 세계화하려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다.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한 것은 가정의 달인 오(5)월에 둘(2)이 하나(1)가 되자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부부의 날 노래도 "둘이 하나 되어"이다. 실로 한 가정이 행복하려면 먼저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행복한 관계를 이뤄야 한다. 성경에서도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부부관계의 본질임을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부부관계를 위한 성경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다. 재미있게도 이 말씀의 장과 절은 부부의 날과 같은 숫자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이 구절을 '부부관계를 위한 5.21 원리'라고 이름을 붙여왔다.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원리는 특히 부부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이 구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부부관계에 대한 성경의 대표적인 권면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 5.21 원리는 상호 복종의 원리 또는 상호 사랑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 원리를 실제 부부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잘 알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동등한 존재로 받아들여야 한다. 부부의 날을 제정한 중요한 취지도 평등하고 민주적인 부부문화 확산에 목적이 있다. 부부관계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다. 이 파트너십은 같은 방향을 향해 나란히 손잡고 걸어가는 관계다. 마치 두 사람이 한 다리를 같이 묶은 채 달리는 2인 3각 경기와 같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존엄한 인

격체다. 그래서 동등하다. 누가 먼저 창조되었는가는 우월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먼저 지음 받았다는 것은 나중에 창조된 자를 이끌어 가야 할 책임성의 근거다. '원재료'를 놓고 볼 때는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남자의 재료는 흙이지만 여자는 뼈로 지어졌으니 말이다. 그리고 머리뼈나 발뼈가 아니라 갈비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의 대등한 동반자로서 창조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남자들은 여자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남녀는 서로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에게 같이 주어진 명령이었다.

또한 5.21의 원리를 제대로 실천하려면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독특한 역할과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에 있어 평등한 존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역할이나 특성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가 된다는 말은 같아진다는 것이 아니다. 똑같이 않은 사람들이 똑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업을 포함한 모든 파트너십 관계에서 사람들이 동일하게 역할을 하는 경우는 없다. 서로 다른 역할이 필요하기에 동업을 하는 것이다. 참된 하나 됨이란 서로 다르고 독자적인 개인들이 상호의 존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성경은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리더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뜻하는 것이다. 아내를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의미이다. 결코 아내의 열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2인 3각에서도 한 사람이 리더하고 다른 한 사람은 상대방의 리더에 잘 맞춰가며 달려야 좋은 경

주를 할 수 있다.

서로의 특성과 필요를 이해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남자와 여자는 같으면서도 다르다. 부부로 살아온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다 알고, 아들과 딸을 키워본 사람이라면 다 안다. 후천적으로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달라지는 면도 있지만, 오늘날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생물학적으로 원래 다르다는 사실이다.

상호 복종과 상호 사랑의 원리인 5.21 원리의 실천에는 부부가 서로의 필요를 잘 알고 그것을 채워주려는 노력이 포함돼야 한다. 일반적으로 남자는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고 여자는 보호와 사랑을 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아마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결론으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정서적 친밀감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만이라면 우리는 여타 동물들과 다를 것이 없다. 사실 육체적인 친밀감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정서적 친밀감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과 방편이다.

인간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정서적 욕구가 강하다. 이것을 적절히 충족시켜서 깊은 친밀감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부부가 키워나갈야 할 사랑이다. 행복한 크리스천 부부의 관계는 각자가 성도로서 열심히 봉사하는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의 관계가 아니다. 그 이전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깊고 친밀한 정신적 유대감을 충만히 나누어 만족하게 살아가는 관계이다.

실로 부부관계에서 누려야 할 참된 행복이란 정서적으로 일치감과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많은 부부들이 이런 친밀감이 없이 냉담한 상태에서 그저 의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하여 많은 부부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허물어져 간다. 지금부터 20년 전 어린이날,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라는 한 어린이의 TV 인터뷰가 방송됐다. 그때 충격을 받은 권재도 목사가 부부 주일을 처음 도입했고 오늘날의 부부의 날이 있게 된 것이다.

부부의 날, 5월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려고 다짐하는 날이다. 그 다짐 속에 부부 행복의 5.21 원리, 에베소서 5장 21절을 기억하자.



엘에이 십자가 사역원이 개원 후 첫 '십자가 집' 체험 시간을 마련했다.

## “십자가 체험 통한 사명 회복”

### 엘에이 십자가 사역원 개원, 제1회 십자가의 길

엘에이 지역 목회자들에게 '십자가 집'의 체험을 통해 쉽지 않은 이민목회 현실 극복의 전기를 마련해 주고자 '엘에이 십자가 사역원'이 개원하고, '제1회 십자가의 길' 행사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 십자가 사역원은 이미 본국의 새창원은혜교회(기도원: 담임 피은혜 목사)에서 매년 진행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사역으로, 엘에이 청운교회(담임 이명수 목사)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개원하게 됐다.

사역원은 이곳 엘에이에서 약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는 팜데일 지역 청운교회 비전하우스 자리에 위치해 있다. 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 처소 마련과 주님이 걸어가신 14개의 '십자가의 길'은 새창원은혜교회에서 직접 참가하여 마련해 줬고, 참가 목회자들의 체류 비용 일체는 청운교회 측에서 감당했다.

따라서 참가 목회자들은 온전히 '십자가 집' 체험을 통한 회복의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됐다. 이 행사에 참가한 백동홍 목사(그라나다힐한인교회 담임)의 실제 체험의 간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 제1회 미주 십자가의 길

얼마 전 '십자가의 길(비아 돌로로사)' 행사에 다녀왔다. 5월 4일부터 3박 4일 동안의 기간이었다. 한국 경남 창원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십자가의 길'을 이제 미주 지역에서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 행사에 참여해 '십자가 집'의 체험을 통해 엄청난 위로와 치유

경험을 하게 됐다. 또다른 참가자는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등성이를 올라가는데,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나무 십자가를 차마 버릴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힘겹게 가는 과정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주의 위로를 받으며 목회의 영성이 회복되는 것을 체험했다고 한다.

드디어 나의 순반이 되어 사역팀의 인도를 따라 일어섰다. 상의를 벗기는 못했다. 양말도 안 벗으려고 했는데 신발이 없어지고 말았다. 진행자가 내게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건네주었다.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길 따라 밝혀 주는 불빛을 따라 어둠 골짜기로 들어섰다. 사방은 고요했다. 홀로였다. 그리고 스스로 여색했다.

그런데 저 골짜기를 지나던 어느 순간, 순간적으로 마음이 울컥하더니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내 모습이 보였다. 부끄러웠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가슴이 너무 아파왔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사랑이 물같이 스며왔다. 나도 모를 일이었다.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젊은 시절 은혜 받던 그 시절 이후, 이렇게 눈물이 줄줄 흘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 사랑하는 형제! 자매여! 학예회하는 것 같고 어린아이의 연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무 십자가 지고 주님의 고난의 길에 참여해 보자.

문의는 담임 이명수 목사(청운교회) 전화: 213-675-8291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해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 2015 VBS JOIN US

탐미디어에서 준비한 더욱 풍성한 2015 VBS 아이템... 미리 준비하셔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50**

VBS CD  
(Copy & Print)  
\$1 (Min. 50개)

~~\$75~~ **\$60**

VBS BANNER  
3 ft x 10 ft \$75

**패키지 상품**

아내배너/VBS 환영배너 2set  
+CD50장 +포스터30장

**\$250**

**VBS T-SHIRT**

VBS T-SHIRT를 탐미디어에서 주문 해야 하는 이유

- www.group.com보다 더 저렴한 가격 (옵션)
- 앞면에 교회 이름까지 인쇄
- LA 근교 FREE SHIPPING

어른 \$7.20 (일반사이즈 기준)  
어린이 \$4.20

**VBS 어린이 선물용품 coming soon**

— MEDIA TOTAL SOLUTION —  
**TOPMEDIA**  
www.topmediausa.com  
3170 E. 11th Street Los Angeles, CA 90023  
e-mail: info@topmediausa.com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junimedia.com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실내외, 차량) 제작, 판촉물인쇄 전문

개척교회 및 신학교, 선교단체를 위한 특별한인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으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심은

누가복음 10:17-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 누가복음 10:17-24

17 칠십 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 하더이다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21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라 하시니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라 하시니 이 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라 하시니라

신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성과로 인해 기뻐하시는 기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보면 두 번째 제자들을 더 많이 보내십니다. 첫 번째는 12명이고, 두 번째는 70명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내보내실 때는 그 영적인 성과로 인해 기뻐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즉, 2차 전도여행을 가는 70명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시키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내보내신 것입니다.

### 2. 2차 전도여행: 70인 제자들

70명이 나가서 2명씩 35팀이 되었습니다. 2명씩 보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2라는 숫자를 증인을 세울 때 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가야하기에 증인이 성립되는 숫자인 2명씩 보내신 것입니다.

70명이 성령과 진리로 완전 무장하고 예수님이 내보내셔서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을 물리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70명이 전도훈련 나가 전쟁하고 승리하여 예수님께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기뻐 돌아와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라 하며 주님의 이름은 작게 하고, 자신들의 역할을 더욱 크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사탄이 그들에게 항복했다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이 사탄과 전쟁하러 갈 때에 부여주시 성령이, 그들의 심령에 들어갈 때에, 즉, 그들이 성령 받는 순간에 그들의 이름이 천국에 등록되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노릇을 제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다가 하늘나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부분만큼 상속권을 부여 받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70명 제자들에게 귀신을 억제하고 병을 고치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제자들이 귀신들과 영적으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성령의 권능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21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길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많이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도 고쳤는데 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할 때에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였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해 개인의 명분과 실속 쟁기에 일에 열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나 지금이나 주무시지 않고 심판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돈 벌이와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3. 임마누엘의 실증: 믿음의 기도

성경의 기록을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웃으셨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본문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는 더하여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쫓겨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그 상황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서 악령에게 승리할 때마다 지옥은 허물어지고 천국이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지옥을 파괴하고 허물어 버리면서 그 지옥이 천국으

로 바꾸어지도록 확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은사와 영적인 힘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악령과 부딪히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악령을 몰아내고, 그 사람을 빼앗아 교회로 인도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그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해주고, 천국을 소망하며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빌립처럼 "와보라" 하며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시키면, 그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아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한 형제, 한 자매가 됩니다. 이는 우리를 통하여 악령에게 사로잡혀 지옥에 이끌려가던 인생을 빼앗아 천국으로 돌아키게 하는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영적으로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령 받아 헌신하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악령과 싸우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성령께서 싸우시고 말씀이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항상 깊이 기도함으로 성령이 나에게 더욱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승리하면서 악령을 물리치고, 죽어가는 인생을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성과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사는 목적을 복음 전도에 힘쓰십시오! 우리가 함께 전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토요일 오전 7시	목요일 낮 12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동부 오후 7시30분 동부 오후 9시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b>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b>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기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b>FULLER THEOLOGICAL SEMINARY</b>  <b>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b>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b>호라이즌대학교</b>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정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 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b>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b>                  TRACS 20회원 인증                  특장: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b>미주대한신학대학</b>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b>솔로몬 대학교</b>                  명품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사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b>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b>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b>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기, 규원사학)</b>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박사 전공) .                  - 한국상고사(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공은 일제 식민사학 (단국신학)이 아닌 전통역사사 학단고기,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기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de #94874 비영리공공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로교단 미주교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미국리안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213-908-8986                  email: acus-edu@hotmail.com / acusim@eongu.ac@gmail.com</p>
<p><b>코헨대학교&amp;신학대학원</b>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b>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b>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b>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b>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edu                  www.chongshinus.edu</p>	<p><b>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b>                  다기독교학과(BA),목회학석사(M.Div),상담학석사,선교학석사,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류종길 박사, 이사장:류종길 박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2-0307                  www.aeu.us / aeuimaster@gmail.com</p>



##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세요.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교학 Ph.D  
현 '제일좋은 예담교회' 담임목사

## Pre-K/Kindergarten Pastor

유치부 전도사

**Descrip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GSPC) is located East of Los Angeles in the city of Rowland Heights. We are searching for a part-time pastor to shepherd our preK-kindergarten (age 3-6) department. We are searching for a shepherd who will love, model, and teach our young children toward our Lord Jesus Christ.

**Qualification requirements are as follows:**

1. Currently enrolled, or graduated from a Bible college or theology program at an accredited seminary. Verification WILL BE requested prior to hiring.
2. Thorough understanding of the Korean-American immigrant church and cultural context.
3. Fluency in English. Fluency in Korean is not necessary but this position requires at least som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Korean parents.
4. Previous children's ministry experience preferred but we will consider all applications.
5. A person of prayer.
6. Must have a family-centered ministry mindset, as parents are a crucial part of the ministry.

**Primary duties are as follows:**

1. Direct and lead Sunday worship as well as Bible study each week.
2. Direct and lead Friday night fellowship each week.
3. Create and execute annual plan and budget for the kindergarten department. The annual plan will include activities and events such as: VBS, prayer meetings, and any other fellowships.
4. Oversee and lead a staff of Bible study teachers.
5. Collaborate and work with other pastors in the Christian Education department.
6. Report to the Christian Education pastor.

Position	Salary and Housing	Benefits
Part-time	\$1500/month	none

a Resume with picture and Testimony  
2 or 3 letters of recommendation(must come directly to Clark Choi from the recommender via email or US mail)  
mp3 or a youtube link to one of your sermons it would strengthen your application.

**Good Shepherd Presbyterian Church**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EMAIL : clarkjdsn@yahoo.com (To: Pastor Clark Choi) Phone : 714.328.2866

하루 세끼를 모두 집에서 챙겨 먹 는 남편 때문에 아내에게 생기는 스트레스를 '삼식이 스트레스'라고 한다. 맞벌이 부부로 같이 일하는 아내들조차 하루의 근무시간이 끝나 가면 성취감을 느끼기에 앞서 오늘 저녁 '뭐 먹나?'로 머릿속이 가득하다고 한다.

퇴근한 아내들은 옷을 제대로 갈아 입을 시간조차 없이 마치 요리 달인인양 도마 위에 썰고 다지고, 한참 푹푹 소리가 들리다 보면 찌개 끓는 소리와 식욕을 자극하는 음식냄새로 식구들은 자연스럽게 식탁으로 몰려들게 된다. 그런데 맛있는 식사시간은 길어야 30분, 다시 가득 쌓인 설거지 할 접시들을 보면 어깨가 천근만근 내려앉는다. 이때

## '삼식이' 스트레스



김 한 요 목사  
베델한국교회

멋진 남편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저녁 준비한 아내의 수고를 덜어 주지만, 그런 멋진 남편은 그리 많지 않다. 다시 비디오를 뒤돌리듯 설거지하며 부엌을 정리하고 나면 허리가 뻐근해지고 발에서는 불이 난다. 그때서야 여유있게 차라도 한잔 할라

치면 빨래를 해야하고, 아이들 숙제 챙겨야 하고, 집에 가져온 직장 일도 확인하는 등 하루를 마무리하다 보면 어느새 피로에 젖어 꾸벅꾸벅 졸고 있는 아내들이다. 기절하듯 잠자리에 든 아내들은 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준비며 도시락 준비에 출근 준비까지 한다. 그 사이 새벽기도를 다녀오는 또순이도 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지키는 챔피언들이다.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가정을 지키는 에너지로 바꾸어 매일매일 창조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아내들에게 기립박수를 보낸다. 아내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틀림 없이 더 클 것이다.

## 자식 숙제



정 우 성 목사  
남가주광영교회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민자의 삶에 소원이 있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가정을 이루는 일에 공식은 없다. 왜냐하면 다양성 속에 일치감이 있고, 공통점 속에 독특한 개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균형과 절제의 미덕이 필요하며 경청과 섬김의 태도가 필요하다.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모범이 필요하며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통한 참된 신앙 심어주기가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식은 여호와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

자식은 축복이다. 자녀는 기업이다. 기업이라는 원문은 숙제라는 뜻이다. 숙제는 쉬울까? 어려울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날마다 하는 것일까?

인생은 숙제이다. 가정도 숙제이다. 부모에게는 자식이 나이와 상관 없이 평생 숙제이다.

숙제의 답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 갈 때도 있다. 그래서 자녀라는 숙제는 부모 혼자서 푸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가 같이 풀어야

한다. 식구들이 숙제를 차근차근 풀다 보면 꿈꾸는 가정이 보이기 시작한다.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라면 숙제 1번을 푼 셈이다. 1번만 잘 풀어도 다음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시128:1)

숙제를 풀기 위해 밤을 새는 적도 있다.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숙제를 풀어서 기쁜 날, 즐거운 날도 경험한다. 너무 큰 숙제만 풀려고 하면 처음부터 숙제가 풀리지 않아 고통 받을 때도 있다. 숙제는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풀어나가면 자신감도 생기고 믿음도 생긴다. 예를 들어 멋진 피아

니스트가 되고 싶다면 하루에 몇 분씩이라도 연습해야 한다.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어 훈련해야 한다.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가? 큰 것을 이루려고 시도하기 전에 조그마한 일부터 시작하라. 짧지만 소중한 시간들을 투자하라. 즉, 자녀들의 얘기를 들어 주고, 아내를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과 같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하루 중 가족이 말씀과 기도도 하나될 수 있는 10분을 떼어 놓으라. 잠깐이라도 우리의 가정을 위해 시간을 내어 보자. 삶을 나누고 보여 주자. 그러면 그 짧은 시간들이 모여 우리와 우리 가정의 아름답고 풍요로운 미래가 될 것이다.

기억하자.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 활 시위를 떠난 화살, 입을 떠난 말, 흘러가는 시간이 그것이다. 흘러간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금과 앞으로 살아갈 내일의 시간들이 있다. 짧지만 소중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가정의 숙제를 하나 하나 풀어 나가자. 꿈꾸는 가정이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다.

## 불편한 예수 (VI)



제 이 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 시대 청소년들은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로 여기기에 이에 대한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면 한 세대를 잃어버릴 수 있다 생각한다.

십대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또 청소년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그리고 여러 기독교 학교의 설문 조사 자료를 근거로, 왜 청소년들이 예수를(그리고 더 나아가 기독교 자체를) 불편하게 인식하는지 시리즈로 살펴 보고자 한다. 첫 호에서 제기한 바, 청소년들이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각각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 5. 예수는 디지털시대 라이프 스타일에 시대착오적인, 걸맞지 않는 존재다

수준이 기차가 현대 생활에 시대착오적인 것 같이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종교 자체가 디지털 시대에 착오적(anachronistic)인 유물이라고 청소년들은 생각한다. 또 젊은이들은 "기술 만능사회, 즉 오늘날 같은 디지털 세대에 고대 문헌인 성경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질문하며, 예수님은 2천년 전의 존재인데 어떻게 지금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자신과 상관이 있는지의 아쉬워 한다. 그리고 종교는 지식과 과학의 발전이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에 국한된 것이라 생각한다.

버튼만 누르면 온갖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 시대, 젊은이들은 스승이나 교사, 더 나아가 부모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이 모든 것을 직접 찾아내고 이해하고 해낼 수 있다고 착각한다. 이것은 분명 교만이요 기만이다. 이런 자세는 세상에서 말하는, 특히 미국과 유럽의 서구 선진국에서 축전하는 인본주의 교육의 결론이자 사상이요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메시지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던지는 거짓인데, 이런 메시지는 기성세대도 잘 분별하지 못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어떨까? 청소년에게 이런 메시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연스러운 태도와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분명 지금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혼자 다 해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교사도, 부모도,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도 필요없다고 여긴다. 그저 정보를 쉽게 접하고 찾을 수 있다는 착각으로 인해 부모나 교사, 그리고 신앙의 선배를 쉽게 무시하며, 신(神)이란 존재는 지금 우리 세대엔 불필요한 유물이라 취급한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삶의 근원이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중심이신 분이라 말한다.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 아무리 기하급수적으로 발달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고,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 할지라도 전지전능한 창조주 앞에선 그저 피조물을 뿐임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옛날 무지한 시대에 사람이 만들어낸 버팀목이 아니라 시간, 공간, 문화, 언어를 초월하시는 삶의 주인이자 중심이시다.

하나님을 시대착오적인 유물로 취급하는 것은 위험한 교만의 징후이다. 미숙하고 어리숙한 청소년의 착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내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자 철없는 자식을 기다려주시는 좋은 아버지이다.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청소년과 젊은이를 키우는 것이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학 교, 그리고 부모의 책임이다.

무엇인가 혼자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다 나쁘다 할 수는 없다. 사람이 라면 살아가며, 그리고 청소년이나 젊은이라면 성장하며, 성숙해지며 꼭 자신이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나 타인의 도움 및 조언을 짜증날 정도의 간섭으로 취급하는 태도이다.

혼자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사단은 진리의 정반대를 제시할 때도 있지만, 보통 진리를 비틀어서(twist), 진리와 살짝 다른 거짓말을 제시하는데, 마치 명품을 모방한 짝퉁과 같다. 다시 말하지만, '삶 속에 자신이 해야 하고 싸워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혼자 해야 하고, 절대 권위주의자나 부모, 또는 신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고 사단은 귀에 속삭인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에 넘어간 세상은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는 사람, 즉 독불장군을 더 높게 평가한다.

70년대와 80년대 말보로나 버지니아 슬림스 같은 담배 광고를 기억하는 독자가 있을 것이다. 그 광고는 담배만 파는 광고가 아니었다. 개인주의, 독립심, 자아중심적 자세, 규칙이나 룰을 어기더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요즘도 그런 광고



# “장로교 정체성 확인하고 연합과 일치 추구하자”

‘제7회 장로교의 날’ 7월 10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서 열린다



장로교의 날 발대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수원 목사, 이하 한장총)가 19일 오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7회 장로교의 날’ 발대식을 개최했다.

홍호수 목사(실행위원장)의 사회로 열린 발대식에선 이재형 목사(기획본부장)가 올해 ‘장로교의 날’ 계획을 보고했고, 이어 김인기 목사(비전70부흥단장)가 대회 성공을 위한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올해 ‘제7회 장로교의 날’ 행사는 ‘광복 70주년 - 사랑으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한국장로교회’를 주제로 오는 7월 3일부터 10일까지 학술심포지엄과 기도회 및 기념대회 등으로 치를 예정이다.

우선 학술심포지엄은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장로교 신학자 및 목회자

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기념대회는 10일 오후 3시 역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거행된다. 참석 인원은 약 1천5백 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준비위원회 대표회장은 황수원 목사(한장총 대표회장)가, 위원장은 백남선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맡는다. 서기는 이재형 목사(개혁국제 총무), 회계는 조성제 장로(예장 합동)다. 그리고 한장총 회원교단 총회장 23명과 증경대표회장 21명이 각각 공동대회장 및 고문으로 섬긴다.

또 홍호수 목사(예장 대신 총무)를 위원장으로, 이홍정(예장 통합 사무총장)·김창수(예장 합동 총무)·이경욱(예장 백석 총무) 목사를 공동실행위원장으로 하는 실행위원단도 구성됐다. 위원은 한장총 회원교

단 총무 및 사무총장 19명이다.

한장총은 이번 대회에 대해 “장로교 전통예배를 통해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연합과 일치를 추구할 것”이라며 “또 ‘한 교단 다체제’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고 광복 70주년을 맞아 ‘하나님 나라 통일운동’을 확산하며,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장총 황수원 대표회장은 “우리가 일치하고 연합하면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광복 70주년에 열리는 이번 ‘장로교의 날’이 보다 성숙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 무엇보다 한국교회 앞에 장로교가 연합한 모습을 보여주자”고 전했다.

한편 한장총은 발대식에서 제32-1차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 김진영 기자

# 기하성(여의도) 정기총회 성료

이영훈 총회장 재추대, 순수 복음과 성령충만 강조



기하성 여의도 측 제64차 정기총회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가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바울성전에서 제64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영훈 현 총회장(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을 차기 총회장으로 재선출했다.

‘성령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이영훈 신임 총회장은 참석한 총회대의원(총대) 630여 명의 박수를 통해 재추대됐다. 또 기하성 여의도 측과 서대문 측은 이번 제64차 정기총회를 교단 통합 총회로 열려고 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이날 이 신임 총회장은 “이번 총회는 한국교회의 오순절 성령운동을 이끌어가는 우리 교단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오직 성령충만의 능력으로 재부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이번 총회가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권 아래 있는 현대사회 속에서 복음의 순수성을 수호하고 온 세상을 향한 선교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신임 총회장의 재추대와 함께 기하성 여의도 측은 임원선출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제1·2·3부 총회장에는 각각 이태근(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강영선(일산순복음영산교회), 윤종남(순복음금정교회) 목사가 추대됐다. 김봉준(구로순복음교회), 최명우(순복음강남교회) 목사와 김인식(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도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현 총무인 엄진용(제일종은교회) 목사가 다시 총무로 선출됐고, 서기 이일성(순복음삼마교회)·재무 박형준(순복음평택중앙교회) 목사·회계 박경표(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가 추대됐다. 하석수 기자

# 통합, 6월 7일부터 “평화통일을 위한 70일 기도운동”

# 예하성 총회장에 진등용 목사 선출



변창배 기획국장(좌)과 이홍정 사무총장(우)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예장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이 18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족 화해와 치유, 평화통일을 위한 70일 기도운동”을 6월 7일 - 8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복 70주년 기념 주일인 8월 9일에는 총회가 배부하는 ‘광복 70주년 감사예배(안)’를 사용해 예배를 드리고,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한 주간은 ‘광복 70

주년 기념 특별사색기도회 자료집’을 사용해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이 진행된다.

정영택 총회장은 “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이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와 민족이 남북으로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며 “우리 민족은 민족상잔의 6.25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60년

이 넘는 세월 동안 화해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총회는 이러한 분단 현실을 넘어 한반도에 화해와 평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정 총회장은 “이를 위해 총회는 정전협정 체결(1953년) 60주년이었던 2013년부터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올해(2015)년까지 3년에 걸쳐 ‘민족의 치유와 화해 및 평화통일을 위한 3년 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총회 산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 과정’ 중 3년차인 올해 발간하는 기도집에는 6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70일간의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며 “총회 산하 모든 교회는 이 70일 동안 기도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했다.

하석수 기자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예하성) 제64차 정기총회가 18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딤후 6:12)라는 주제로 경기도 안양시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열렸다. 이 총회에는 1,500여 명의 총회원이 참석했다.

임원선거에서는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해 총회장에 진등용 목사, 부총회장에 조원익 목사, 총무에 김병목 목사, 서기에 이인규 목사, 재무에 김종연 목사, 회계에 김영준 목사가 각각 선출됐다.

신임 총회장 진등용 목사는 당선 인사말을 통해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 준 총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맡겨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목회현장을 만들어 가며,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이단·사이비를 배격하고 성경대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을 밝혔다.

참석한 총대들은 한국교회에 만연되어 있는 이단·사이비에 대한 불감증을 타파해 나갈 것과, 올바른 복음 전파와 사수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 창조 질서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자 축제를 저지하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업무 및 사업보고, 목사고시(고시위원장 김인규 목사) 합격자 29명에 대한 인준에 이어 각 국·위원회별 사업보고 및 업무계획들을 처리했다.

이대용 기자



진등용 신임총회장

www.e-nca.org

##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갖춘 명문사립 NCA가 있습니다!

**LA 학부모님, 아직도 학군 따라 이사가십니까?**

졸업생 전원 아이비리그 및 UC 계열대학에 진학하고, 타 사립학교 대비 월등히 경제적인 교육비로 소수정예의 교육이 가능한 NCA에서 가르치십시오.

- 졸업생 평균 GPA 4.34 및 SAT 평균 2,048점 기록(전미주 평균 1,500점)
- 지난 15년간 전 졸업생이 UC 계열과 유수의 명문대학에 진학
- LA에서 유일하게 국제학사(IB) 및 AP 프로그램 동시 실행
- 학생과 교사 비율 평균 10:1로 소수정예의 질 높은 교육 환경
- 새 학기 보충수업 위주의 썸머스쿨 운영(필드트립 등 다양한 액티비티 제공)
- 편리한 교내 애프터스쿨 운영(월 \$75~\$150 정도의 경제적인 비용)
- 미주 최초 한인이 설립한 비영리 기독교 사립학교로서 영성 함양

**NCA 사립 초중고등학교**  
NEW COVENANT ACADEMY  
3119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입학 상담: (213)400-3588, (213)487-5437      NCA 킨더가든 모집      명문대 입학은 킨더부터 시작됩니다!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갓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1816 S.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최승목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2015년 표어 : 선한과 악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는 교회(마5:45)
1. 민족을 넘어서 2. 신앙을 넘어서 3. 국기를 넘어서
T. (760) 636-2675 / palmsprings.onmam.com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백재준 담임목사
행복한주님의교회
우리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군대, 주님의 신부입니다
7690 Archibald Ave. Rancho Cucamonga, CA 91730

사우스 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est 164th St, Gardena, CA 90247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레스 조은교회
www.torra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심정으로 섬기는 교회' (빌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곽락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주안에 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문/서/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샘물장로교회 임직예배 임직자들

샘물장로교회 임직감사예배

4명 장로 장립 및 4명 권사 취임, 교회의 든든한 일꾼 세워

샘물장로교회(담임 함종현 목사)가 17일(주일) 오후 6시 많은 축하객들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임직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임직식에서는 4명의 장로(장립)와 4명의 권사(취임)가 든든한 일꾼으로 세워졌다. 함종현 목사의 사회 아래 기도(장경성 목사), 설교(송기호 목사), 임직서약, 나의 다짐(임직자들), 안수기도, 선포, 축사 및 권면(이재광 목사), 축도(이원복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된 예배에서 송기호 목사(선상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란다. 사람도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했다.

축사 및 권면의 말을 전한 이재광 목사(할렐루야교회)는 "훈련을 잘 받고 일꾼이 되신 것을 축하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상받을 것을 바라보고 충성되어 달려가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 교회는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 세상과는 다른 직분이다. 모든 것에 섬기는 자, 교회에 위기가 올 때 고난 가운데 빛나는 일꾼이 되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세우가는데 도구로 쓰임 받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여 쓰임 받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임직식에서는 강영기, 왕정수, 지정원, 앤드류 황 장로가 장립됐으며, 김은순, 백재인, 전해순, 사론 황 권사가 취임했다.

윤수영 기자



과거 할렐루야대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뉴욕 할렐루야대회, 올해가 분기점

분극 준비 돌입, 성공적 개최로 위기론 타파가 과제

2015년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 전도 대회가 6월 26일-28일까지 3일간 뉴욕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진행된다. 강사는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로 소 목사는 지난 2006년에 개최된 제27회 할렐루야대회 강사로도 참여한 바 있다.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전 시절의 할렐루야대회는 뉴욕교계 전체의 축제로 진행되면서 참석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호응 부분에서는 격정 없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대회가 열리던 퀸즈콜든칼리지 대강당은 2천 명이 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다.

올해 대회가 진행되는 장소인 프라미스교회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할렐루야대회 장소로 확정됐다. 분당 좌석수는 총 1500석으로 전통적인 장소인 퀸즈콜든칼리지 대강당보다 좌석수는 적지만 지금까지 치러졌던 할렐루야대회에서 무난한 평가를 받아온 장소다.

당시 성도들의 참여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마룻바닥에 주르러 앉아서도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마룻바닥 자리마저 없어 밖에 서 있거나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성도들도 있었다. 참석인원 또한 강사에 따라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 퀸즈콜든칼리지 대강당을 채우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현재 할렐루야대회 준비를 두고 이제 1년여가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회를 50여 일 앞두고 준비기도회를 시작하고 포스터 제작에 나서는 등의 일정상으로는 예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어진 할렐루야대회의 지표를 살펴보면 참석 인원은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2007년 평양대 부흥운동 1백주년의 해에 진행됐던 할렐루야대회가 빈 좌석없이 진행된 마지막 대회였고 이후에는 점차 해를 거듭할수록 좌석을 가득 채우는 일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할렐루야대회의 전체적인 흐름과 최근 뉴욕지역 교회들의 협력 상황을 판단할 때 올해가 뉴욕교협 집행부의 과제가 무거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할렐루야대회 참석 인원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든다고 있는데다 올해 특별히 교회들의 협력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할렐루야대회는 향후에 또 진행될 할렐루야대회의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강사의 메시지를 비롯해 뉴욕교협 집행부의 집중적인 참여유도와 개교회들의 실질적인 협력에 있어 이번 대회에서 변화가 없는 한 할렐루야대회는 계속된 쇠퇴 기로에서 빠져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이다.

김대원 기자



www.SuperMirapharm.com

# 투병생활이 필요없는 치유의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100% 천연 면역조절제”  
“100% NATURAL IMMUNOMODULATOR”

## 미라팜-22 MIRAPHARM-22

22세기형 생명공학적인 첨단 의약품으로 탄생했습니다.

2014년 한국은 면역조절제 개발이 국가적 신약개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른바 생물학적 면역조절제 개발 프로젝트이다. 인간의 질병의 근본 원인 치료제를 개발하는 게 목표이다. 기존 면역조절제(화학성)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생명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라서 국가적인 개발 과제 삼은 것이다. 그런데 본사는 이런 첨단 의약품제조기술을 25년 전부터 연구하기 시작하여 생체응답 조절작용제로서의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를 미국 FDA에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고 출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FDA에 NDC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인증 등록 됨  
일반의약품 등록번호 NDC No.: 58912-2001-1



FDA 직접 확인해보기  
NDC Number를 선택하시고  
58912-2001-1 로 검색



90cap. 300mg/cap.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질병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 MIRA PHARM -22

Mirapharm-22는  
Miracle Pharmacy(기적의 약)의 합성어이며  
22는 22세기형 첨단신약을 뜻합니다.

~~\$600~~ **\$400** /1병 (한달분)

100% 천연 물질로 만들었으며 25년간의 연구와 비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1년간의 임상 끝에 미국 FDA에 Human OTC Drug 일반의약품으로 등록됨
- ◆ FDA 등록 연구소에서 성분 분석 테스트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약으로 등록 명기되어 있음.
- ◆ 친환경 100% 천연 유기물질을 핵심 재료로 생명공학적인 공법으로 특수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첨단 천연의약품인 면역증강 및 면역조절제
- ◆ 면역증강제로도 치유되기 어려운 자가면역질환들을 면역조절제로써 자가치유할 수 있는 첨단 의약품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탁월한 효능을 입증받아 일반의약품 NDC OTC Drug로 등록되었으며, 수많은 난치병들 중 대부분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현존하는 약으로는 치료가 어렵지만 면역조절제인 미라팜-22는 이런 난치병들을 자기와 비자기를 인지할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작용, 항원특이적 또는 비특이적으로 면역반응을 증강시켜 면역계에 작용하여 면역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면역을 스스로 조절해 주면서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줌

최근에 피부암 치료제 옵디보가 출시되었습니다. 1년치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약값이 \$143,000입니다. 그러나 미라팜-22는 피부암은 물론 각종 암 치료제입니다. 한 달분 한 병 특가 \$400이며 임상 치료 효과도 더욱 높습니다.

### Mirapharm-22 복용 체험담 요약본

- (60대 남) - 대장암 말기로 1년6개월 동안 매일 혈변, 수술 일절 안하고 항암제도 전혀 안받고 오직 미라팜-22만 하루에 6알 복용. 그 후 암덩어리가 자꾸 빠져 나오기 시작. 50일이 경과한 후부터 일절 혈변이 없이 한 달(11월7일)째임. 건강해지면서 피곤이 없어지고 식욕도 돌아옴. 저희 업소가 있는 몰 안의 경비원으로 근무중
- (50대 여) - 쇼그렌증후군 7년이상 눈물, 침 분비가 안되는 불치병. 7년동안 삼성병원 치료받고 있어도 효과 전무함. 제력 충분하여 현대의학, 어떤 대체의학도 치료불가능 체험함. 미라팜 5알씩 복용 후 2주일쯤부터 편안한 느낌. 28일 후 침샘이 고임. 4개월 지나서 백혈구 수치 4000이 넘어 정상 회복됨. 과거 큰 사업들 다 접었는데 지금(11월7일)은 더 확장하면서 급속도로 호전됨.
- (47세 여) - 구인외사로 얼굴 반쪽이 찌그러서 은행도 그만두고 1년 동안 밖에도 돌아다닐 수가 없다가 3병 복용 후 완전히 정상이 되어서 다시 은행에 다닐 준비하고 있어 행복하다 하심.
- (9세 여 베트남) - 백혈병으로 고생 중 2병째 먹고 딱딱했던 두피가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해지면서 회복 중. 어머니가 채널 57-1 베트남 TV 방송에 인터뷰 자청하심.
- (56여 베트남) - 몇 달 복용 후 목에 갑상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간암 세포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음.
- (26 남 베트남) - 날 때부터 자기면역 알러지 질환으로 피부가 갈라지는 난치병에서 미라팜-22를 이틀 먹고 즉시로 회복되어 건강해져서 그 어머니가 베트남에 방문하여 베트남 정부병원 닥터 16명과 3일간 미라팜-22 의약품 미팅을 가짐.
- (84세 여) - 만성속환으로 인사불성에 장례준비하러 의사 권유에 미라팜 며칠 먹고 간호사도 놀라는 가운데 의식회복하고 곧 바로 손주와 직접 전화통화함.
- (60대 여) - 의료사교로 뇌사판정 후 장례 준비 권고 3회 받고 마지막 기회로 죽어도 좋다고 서명한 후 미라팜-22 선택. 위장관을 설치하여 위장에 넣고 18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함. 유튜브에서 "뇌사 미라팜" 을 검색하면 나옴
- (50대 여) - 한 병 드신 후 파킨슨병으로 고생 중 팔 움직임이 좋아졌다.
- (20대 여) - 한 달 후 생리불순 해결되었다.
- (70대 남) - 한 병 드신후 암 수술로 머리카락이 없었는데 검은 머리카락 다시 난다.
- (50대 여) - 하루 3캡슐로 5일 복용후 가슴의 통증이 사라졌다.
- (50대 여) - 밤새 잠을 못 잤는데 10일 후 편안하게 자면서 낮잠도 잔다.
- (60대 남) - 하루 5캡슐로 전립선이 많이 호전됐다.
- (50대 여) - 일주일 복용 후 머리 감은 후 화장실 바닥이 까맣게 될 정도로 빠진 머리가 한 올도 안 빠진다.
- (70대 남) - 전립선암, 대장암 수술 이후 다리 전체 절임이 줄어들고 식욕이 증가됐다.
- (50대 남) - 쓸개 수술 후 3년동안 하루 6번 설사가 이를 복용 후 멈추었다.
- (60대 남) - 신장투석 중 가려운 증세가 없어지고 인 성분이 툭 떨어졌다.
- (80대 여) - 각종 암 수술 후 거의 움직이지 못하다가 한 병 드시면서 기력을 회복되고 있음.
- (50대 남 외국인) - 대장암 환자. 미라팜-22를 2병째 먹고 대변 시 핏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복됨.
- (50대 여 외국인) - 체제가 유방암 수술 후 재발하여 미라팜-22 복용 후 6개월 만에 완치 판정받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5개국 미라팜-22 독점권을 신청하여 획득하고 현재 사업 중임.

(이상은 미라팜-22를 복용하고 체험법은 최근의 사례에 불과하며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계속해서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http://www.KBSmall.com)

###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Repair Servant) (God's Servant) “리페어 서번트--갓스 서번트”

## 교회 음향기기에 문제가 생겼나요? 리페어 서번트를 부르세요

“녹음이 문제란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버튼 스위치 하나가 꺼져 있었다. 그것 하나 ‘꾸-우-욱’ 눌러 주니 감쪽같이 해결됐다. 그런데 참 잘 왔다. 오디오 믹서 하나 얻었다. 잘 손보면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멀쩡했다. ‘어디(작은교회) 오디오 믹서 필요한 곳 없나요?’”

지난 24년 동안의 담임목사, 음악 목사, 그리고 미디어목사 경험 바탕의 기술사역으로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미자립교회를 무료로 지원하며 ‘나홀로목회’에 신바람나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 다름아닌 ‘리페어 서번트(Repair Servant)’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마원철 목사이다.

이 사역은 고장난 장비를 수리하여 장비구입의 재정지출 부담을 줄여준다거나 현재의 장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사역이다.

마 목사는 어려서부터 음악과 오디오 기기, 아마추어 햄 무선 관련 전자장비 중 가장 종합적이면서도 까다로운 무전기를 수리는 물론 설치 가능한 정도로 전자장비에 관심이 많았고 그 만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험과 기술습득은 훗날 교회의 사운드나 무선 마이크, 비디오 장비들을 수리하며 다루는 미디어목사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

마 목사는 한국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 성가대 지휘와 New Life Mission(전가화 목사)에서 음악과 미디어를 담당했다.

1986년 미국으로 이민 온 후에는 미주복음방송 사운드엔지니어와 찬양의 꽃다발, 사랑의 종소리를 담당하며 섬겼다.

골든게이트신학교를 졸업하고 남가주웨슬리교회에서 음악목사, ANC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미디어와 공동체 담당목회를 섬겼다.

그 후 인랜드온누리교회에서 5년간 담임목사로 섬기던 중 2013년 가을, 왼쪽 신장에 적신호가 왔다. 결국, 문제의 신장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 마 목사는 수술 후, 회복기간을 거치며 되돌아볼 틈도 없이,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날의 사역여정을 순간순간 떠올리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전화를 타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목사님! 큰 일났어요. 엠프에서 소리가 안나요. 빨리 도와주세요. 순간 ‘피식’ 웃음이 났다. 어느 목사님이신지 그 분은 애가 타겠지만, 이리저리 불러 다니는 나는 신바람이 났기 때문이다. 잠자고 있던 기기가 간단한 수리만으로도 제 기능을 되찾아 ‘짹짹’해지는 모습을 보고, 어쩔줄몰라 애타던 목사님께서서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고, 그 웃으시는

능을 되찾아 ‘짹짹’해지는 모습을 보고, 어쩔줄몰라 애타던 목사님께서서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며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고, 그 웃으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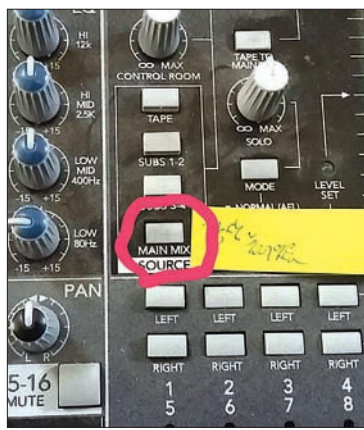


마원철 목사

모습을 보며 나는 보람도 있고 흐뭇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회복 기간 중 지난날을 회상하던 마 목사는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에 보탬 되길 고민하면서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하나 메모해 나갔다. 마 목사가 가장 잘 하는 것은 노래였다. 원래 목사가 안 되었다면 성

악가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그 다음이 어려서부터 가까이했던 악기, 오디오기기, 무선 전자장비 등등. 그리고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미자



수리가 의외로 간단한 경우도 있다.

립교회를 돕기 위해 ‘리페어 서번트’ 사역의 길을 나섰다.

“씩어도 준치라는 속담이 있다. 원래 본 바탕이 좋은 것은 시간이 지나 낡고 헐어도 그 본래의 품위를 품고 있게 마련이다. 나는 지금 작고 오래된 교회 안의 거의 썩은 수준의 피아노를 만지고 있는 중이다. 외형도 그렇지만 줄들도 녹이 슬고 줄을 감는 핀도 헐거워 음이 쉽게 풀려버

리고 만다. 절룩거리는 액션들을 활동이 뜸한 고음과 저음역으로 몰아넣고 쓸만한 것들을 모아 자주 사용할 대역으로 이식한 후 조심스레 조



새것과 다름없이 말끔히 수리된 기타

울하다 보니 참으로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 역시 썩어도 준치다. 때로는 나의 삶도 낡고 썩어가겠지만 그때마다 나의 존재는 썩어가도 그리스도인임을 상기하며 살아가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그 분의 손에 조율되면 영혼의 맑은 소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의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썩어도 준치인 이 피아노 소리처럼.”

마 목사의 ‘리페어 서번트’ 사역은 그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 갓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섬겨야겠다는 초기와는 달리, 대형 교회에서도 ‘리페어 서번트, 갓스 서번트’ 마원철 목사를 찾기 시작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그들의 부름을 받고 마 목사는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마 목사를 전문가로 여기고 교회 음향 관련 기기를 수리하는 큰 프로젝트 성 작업을 맡기기도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를 통해 그 은혜는 어렵고 힘든 작은 미자립교회로 흘러갈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섬세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긍휼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며 힘들고 지친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때때로 나는 나의 직업이 플러머인가 착각할 때가 있다. 마음씨 좋은 이웃집 백인 아저씨가 수시로 나를 호출하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나의 ‘리페어 서번트’ 사역을 눈치챈 그는 집 안의 문고리만 고장나도 날 부른다.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렇게 그는 나를 돕는 동역자가 되어 버렸다.”

“리페어 서번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마 목사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기게 됐다. 벌써 100여곳을 섬겼다. 이 또한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이다. 이렇게 저렇게 속내까지 털어놓을 때도 많다. 정말로 위로의 전도자가 되어 ‘나홀로목회’를 하고 있는 셈이다.

“목사님! 어쿠스틱 기타가 문제예요. 도와주세요!” 요즘들어 기타는 목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실제로 이만불이 넘는 그랜드피아노보다도 이백불이 못되는 기타가 더 역할이 클 때가 많다.

마 목사에게는 요즘 고민이 하나 생겼다. 중고상을 지나다가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중고 악기나 부품을 미리 사놓는 경우가 종종 있고, 또 수리만 잘 하면 한동안 사용가능한 기기들을 도내이전 받는 경우가 생기면서 작은 아파트가 더 비좁아졌기 때문이다. 온갖 장비며 부품 등으로 집안은 발디딜 틈조차 없다. 그래서 좀 더 넓은 창고가 필요해졌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라 믿는다. ‘리페어 서번트’ 사역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은 어디로 인도하실까? 하나님만이 아시리라.

문의: 마원철 목사 전화 909-292-7474, 이메일 RepairServant@gmail.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RepairServant

이영인 기자 irene.lee1124@gmail.com



##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교회를 위한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100% 한국어 1-20 발급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혜택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박사과정 (한 주간, 인턴십으로 강의) 교육 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석사과정 (100% 온라인) 온라인 목회학 석사 신학연구석사 신학연구상담학석사



**성경사역학 철학박사 (Ph.D. in Biblical Studies with Biblical Ministres Emphasis)**  
성경적 교회론을 바탕으로 교회 목양사역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학위과정입니다.  
입학자격: M.Div. 학위 소지자



**교육목회학 박사 (D.Ed.Min.)**  
일반 교육학 박사(Ed.D.)와 동등학위이며 기독교적 관점에서 교회교육을 다루는 학위입니다.  
입학자격: M.Div. 학위 + 교육학과목이수자 혹은 기독교교육학석사학위 + 신학과목이수자



**목회학 박사 (D.Min.)**  
목회학 박사과정은 성경적 모델 연구를 통해 목회 현장에서의 실천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입학자격: M.Div. 학위 소지자



**온라인 목회학 석사과정 (M. Div. Online)**  
(온라인) 정규 목회학 석사(M.Div.) 과정은 본교만의 특별한 과정입니다.  
입학자격: 정규 학사 학위 소지자

사이트: [www.mbts.edu/ko](http://www.mbts.edu/ko)

연락처: 816-414-3754, [ks@mbts.edu](mailto:ks@mbts.edu)

100% 천연성분

#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우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신앙자본 기반의 거룩한 창조적 인재양성 교육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한국복음주의협의회 5월 월례회에서 발표한 김희자 부총장(총신대학교)의 발표문을 게재한다. 이를 통해 신앙기반의 건강한 가정 세우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 I. 사회 안의 아이들 교육의 위기:

### 혼돈의 가장자리

사회 안의 우리 아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최근의 젊은이들의 취업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의 불안감, 정규직에 들어가도 금방 질리고 등의 이유로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

중고등학생은 어떠한가?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소위 "중2병"이라는 인성과괴현상과 더불어 청소년들은 매 7초마다 욕을 하는 언어폭력과 학교폭력이 중고등학교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반면, 취업과 입시에 유리하다고 현실적으로 판단한 고등학생들은 2010년 이후 이과선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들은 어떠한가? 그들은 인터넷의 융합환경에서 태어나고, 소셜네트워크, 인공지능 시스템교육의 일한인 디지털교과서나 클래스팅에서 수업자료를 보거나, 일대일 멘토링을 통하여 꿈을 키우고, 교사나 사이버 상담을 할 수 있는 세대이다.

우리 아이들은 급변하는 환경에서 긴장하며, 도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합동교단의 12,000개의 교회 중 50%에 해당하는 교회는 주일학교 자체가 없다고 한다. 주일학교 출석의 어린이와 젊은이의 감소 추세는 한국의 출생률 하락의 3배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더욱이 큰 문제는 개신교의 양적 숫자와 사회적 인식도는 계속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기독교의 위기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위기와 맞물려 있다. 무엇보다도 급격히 감소하는 교회학교 학생 수, 턱 없이 부족한 준비된 교사의 수, 그리고 교사들의 의욕상실과 탈진증세, 교육자료와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의 낙후, 그러나 교회의 무관심과 방치, 그리고 적절한 대안의 부재라는 문제점들이 교회교육의 암울한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 II. 사회 안의 아이들 교육의

### 거시적 환경변화

현재 한국 기독교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구조는 근본적인 기독교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기독교계는 복잡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상황 속에서 정확한 환경의 변화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

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교회분쟁사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사회적으로는 최첨단의 정보체계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계는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이미 시작된 항구적인 문화전쟁에 아무런 준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급격한 기독교계의 위축과 감소에 대하여 생산적인 대안을 생산하지 못하고, 종교지형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와 같이 기독교계를 둘러싼 복잡한 환경의 변화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대대양을 몰고 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개신교는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근본적인 환경변화에 대한 공동의 대응체계가 부재하다. 교회소외의 외부요인으로는 반기독교 문화전쟁, 반기독교 입법투쟁의 무대응으로 인한 기독교공동체의 붕괴, 내부요인으로는 개교회 중심의 교회이기주의와 공개념의 부재가 결국 주일학교를 더욱 쇠퇴하게 한다. 우리에게 복음과 신앙을 전파한 서유럽국가들의 많은 교회가 카페, 식당, 여행센터, 또는 경매에 나와 있는 엄중하고도 냉혹한 상황을 보라! 유럽교회가 오랫동안 종교 혼합주의에 대하여 다양성과 관용이 미덕인양 기독교계의 붕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그 결과로 오늘의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 III. 사회 안의 아이들 교육의 실천적 방안-거룩한 창조적 인재 양성

### 1. 거시적 교육환경의 위기 극복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교육환경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첫째, 한국교회는 서로 협력하여 복잡도가 높은 한국사회의 다차원적 환경변화에 공동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거시적 사회 환경의 변화에 관한 구체적인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둘째 복잡한 사회문제 방향설정을 할 수 있는 기독교 싱크탱크, R&D 센터 등을 건립하여 기독교 가치의 사회적 아젠더세팅(agenda setting)을 선제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에 대하여 추락하고 있는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도록 교회가 화목과 일치의 공동체적 문제해결 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2008년 1월에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 발생 시 개신교가 대처하던 자세처럼, 여러 교단이 협력하여 한국교회봉사단을 발족하고 100만 명이상이 추운 겨울 바람 속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성금을 전달하여 한국사회의 희망의 복음을 전달하며 삶-기독교(bio-Christianity)를 실천할



김희자 부총장  
총신대학교

때 젊은이들은 스스로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 2. 교회, 학교, 가정의 유기적 융합시스템 구축

성경에 기록된 다음세대 교육은 가정(신6:4-9; 11:18-21; 었 6:4)과 교회(었4:11; 고전 12:28; 롬 12:7)에서 책임을 완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의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신명기 6장,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을 집합적으로 부르라고 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시78:4)의 말씀은 다음세대의 교육적 책임은 지금, '우리'에게 있음을 나타내 준다. 성경 시대의 '학교교육'은 확대된 가족 안에서 또는 회당 안에서 이루어졌다. 신명기 6장과 시편 78편이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에서 차별성 있는 기독교학교 존재의 당위성에 대하여 시사해 주고 있다. 가정과 교회만으로는 세속적 가치가 만연하고 있는 사회에 맞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할 것이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서 있는 교육의 삼각축(three axis)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삼각 축 중 '학교 축'이 다른 기반 위에서 서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 주변의 세속 세계에 반응하는데 균형 잡기 어려울 것이다. 기독교적인 '교육의 삼각 축'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책임있는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첫째, 교회는 가정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기독교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 2013년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기독교의 청년 84.5%가(중학교 이전 65.1%와 중학교 이후 19.4%)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승된 소위 '가정종교' 출신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기독교가 여전히 가정을 중심으로 신앙이 전수되고 있다는 장점과 동시에 불신 청년들의 전도가 미비함을 알려주는 지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

회는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부모에게 교사의 역할을 키워주어 세대통합과 소통을 통하여 신앙이 전승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가정이 해체되었을 때 서구의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하였음을 잊지 말고, 가정이 신앙전수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교회는 가정에게 시간을 배려하고, 가정과 교회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무너지는 주일학교를 바로 세워 신앙을 전승할 때 주일학교를 통한 한국교회 부흥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둘째,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를 통합할 수 있는 융합적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기독교 문화적 생태계가 파괴됨으로써 오는 복합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발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언어폭력, 학교폭력, 군대폭력, 청년실업문제, 저출산문제, 가정해체, 국사교과서의 이념논쟁, 학생조례논쟁, 자사고 존폐논쟁, 미디어의 극단적 세속화를 포함한 사회 모든 부분의 공동체 해체에 따른 가치기반 구조의 붕괴, 종교환경의 격변, 디지털의 일상화, 통일의 불확실성 등 다양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격변의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독교공동체(교회, 가정, 학교)가 강한 세속적 파위를 넘어서는 거룩한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필연적인 환경으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좋은 신앙을 확보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고,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가정의 신앙교육,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학교교육 설립이 중요한 보편적인 시대적 표준으로 설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신앙교육만이 개인의 성장이나 교회와 사회 및 국가의 성장에 최고의 가치로 대두되게 되었다.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앙과 교육의 탁월성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기독교교육이 '기독교적인 것'과 '학문적인 것'의 조화뿐만 아니라 탁월성에 있어서도 신뢰를 쌓아야 한다. 신앙적 탁월성에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을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기독교적 세계관 실천, 통합된 교육과정 전개, 교육행정과 운영,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드러나야 한다. 학문적인 탁월성은 교회가 어떠한 교육기관들보다도 좋은 교육 환경과 시설, 우수한 헌신된 교사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졸업생들이 나라와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로 헌신할 때 인정될 것이다. 이제 제자훈련에 힘쓰는 한국교회

는 21세기의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지켜 나가는 거룩한 인재양성을 위한 기독교지성과 영성의 보루가 되어야겠다.

### 3. 디지털 환경에 맞는 역량기반의 스마트 기독교교육 시스템 체계로 전환

주일날 단 몇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교회교육이 과연 디지털환경에서 나고 자란 세대들의 신앙교육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신학적으로 건전하고 교육할 가치가 있는 기독교 빅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시스템 구축으로 기독교가치를 극대화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기독교 시스템교육을 가동하면, 교회학교의 위치나 사이즈에 관계없이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시공간을 뛰어넘어 교사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일주일 내내 기독교교육을 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 공교육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교육과 초등학교에서 실행하고 있는 클래스팅(classting)을 활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클래스팅을 통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공유하며, 비밀보장 상담 및 알림장 기능이 있어서 학부모에게까지 문자로 전송되기 때문에 학부모가 자연적으로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와 가정이 함께 교육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의 SNS를 활용한 클래스팅은 학부모들, 학생들, 교사들의 소통공간을 넓혀 줄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 모두가 그동안 한국개신교 교회가 직면했던 갈등과 긴장이 오히려 전환점이 되어, 더욱 단단한 미래 교회의 모형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 안의 아이들을 건강하게 교육하려면, 열과 성을 다하고 지혜를 모아 한국교회가 일치와 화목의 건강한 기독교교육환경을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아이들의 교육은 의도적인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교육환경의 경건성 회복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학교를 통한 신앙교육이 한국교회와 나아가서 한국사회의 갈등과 긴장을 넘겨 이기며 우리 아이들을 '거룩한 인재'로 육성할 때 한국교회는 더욱 강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교회는 사회안의 우리 아이들을 '신앙자본으로 무장한 거룩한 창조적인 인재'로 양성해서, 한국교회의 위기가 건강한 아이들 교육을 통하여 회복되어야 하는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 북새통

##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 신간 추천

#### 교리교육이 우리아이를 살린다

테리 L. 존슨 | 생명의말씀사 | 184쪽

우리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관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리를 가르치며,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기독교 진리의 핵심 내용이 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소요리문답은 신앙전수의 탁월한 도구다. 이 책은 교리교육에 생소한 부모와 교사들에게 왜 교리교육이 필요한지 동기부여를 해주며 효과적인 교리교육 방법을 알려준다.



#### 주일신앙이 평일로 이어질 때

톰넬슨 저 · 흥병룡 역 | 아바서원 | 280쪽

주일 신앙이 그대로 월요일의 일로 연결된다면 우리 삶은 어떤 모습이 될까? 이 책은 성경의 눈으로 우리의 일을 고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내시는지를 탁월하게 서술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처해있는 잘못된 직업관과 일터에 대한 관점에서 돌아서서, 우리의 일을 통해 소명을 환성케 하시는 비전을 보게 한다.



####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박현숙 | 규장 | 280쪽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올바르게 키우면 아이들은 세상과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천하 만민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복을 받는다. 부모로서 스스로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고 느껴진다면 성경으로 돌아가면 된다. 자녀양육이 너무 힘들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세요!"



#### 세상 중심에서는 영성 리더십

진재혁 | 두란노 | 276쪽

영성 리더는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책은 첫째 영성 리더십의 이해, 즉 영성 리더십이 무엇이며, 영성 리더십의 카리스마와 파워,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둘째 영성 리더십의 실제, 즉 영성 리더십의 비전과 문화, 리더십 발휘에 대해 이야기하며, 셋째 영성 리더의 영혼, 즉 영성 리더의 영성과 시간 관리, 비판 관리, 기도 등을 다루었다.



## REVIEW

# “우리의 ‘리더’ 성경, 바로 알고 전하기 위한 72가지 질문”

평신도 부부가 펴낸 「성경 가이드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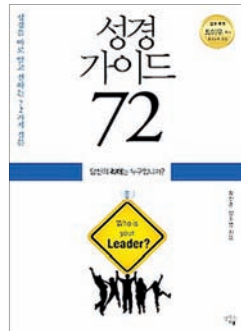
선교단체와 직장에서 리더로 섬기며 성경공부를 인도해 온 평신도 부부가 <성경 가이드 72>를 펴냈다.

저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토대로 72가지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한다.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1부 '성경을 힘써 알아가자'에서는 성경을 올바르게 알수록 주님과 신뢰관계가 깊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2부 '성경과 즐거이 동행하자'에서는 실제 생활 가운데 성경과 동행하는 의미와 방법, 그 복들을, 3부 '성경을 바르게 알리자'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

해야 할 이유들을 각각 정리했다.

저자들은 성경이 자신들의 '리더(Leader)'라고 책머리에서 밝힌다. 매일 아침 자신들의 '리더'에게 삶의 방향을 묻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분이시기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말씀을 통해 리더가 되어 주며 또한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정한 '리더'로 함께하려면 따르는 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인지 책을 통해 전해주고 싶었다고 한다.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로써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은데" 하는



성경 가이드 72  
황진훈 · 양소영  
쌤슨기쁨 | 376쪽

생각에 출간 여부를 놓고 한때 고민도 했지만, 통상 이론적인 것보다는 삶의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것이 바

탕이 된다면 생동감 있고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기를 냈다. 그리고 그들이 다니는 종교교회 최우 목사의 감수를 거쳤다.

저자들의 말처럼, 책에 나오는 72가지 질문들에는 정말 평신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봤던 내용들이나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교회에 꼭 다녀야 하나?', '성경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단가?', '전도, 정말 즐거운가?', '일상에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발견하나?', '성경을 알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나?', 그리고 '왜 양육을 해야 하는가?' 등이다.

그러면서도 3부 마지막 '함께 성

경에서 답을 찾아보자'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는 무엇인가?', '구약성경의 율법, 절기, 성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등 성경 자체에 대한 의문점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은 기독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집필했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삶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기독교인들이라면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웅 기자

#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한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으로 수축되지 않고 인체에 완벽한 섬유와 세계 특허 이중지퍼 사용. 한국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교정 코르셋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깍스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지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깍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증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NB CORSET Tel: 323.316.6815

'가적의 섬유'로 만든 '음이온 건강이불', 발이 불편한 분은 'NB 메디칼 슈즈', 가장 강한 'SJP 슈퍼 유산균 건강제품 전문'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 “지친 사역자의 아내들에게 힐링과 용기를”

글로리아 C. 퍼먼의 「The Pastor's Wife」

# 책벌레 선생의 추천도서

기독교 교사가 말하는 '성경, 글쓰기'

어쩌면 사역자보다 더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 바로 사역자의 아내일 지도 모른다. 사역자의 아내로서, 누구 하나 알아주는 이 없어도 묵묵히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덧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힘겨워 할 때가 많다. 이 책을 통해 이 땅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의 아내가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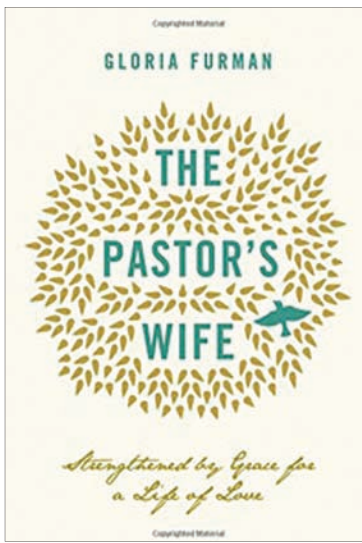
본서의 저자인 글로리아 C. 퍼먼 (Gloria C. Furman)은 한창 선교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의 아내이다. 그녀는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자로서 '새내기 사모'들에게 충고하기 위해 책을 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녀도 선교사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는 젊은 여성이다. 그렇기에 그녀가 그 상황 속에서 깨닫고 나누고자 하는, 소중한 기쁨과 행복은 참으로 설득력 있게 다가온다.

그녀는 사역자의 아내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이라고 말한다. 그 사랑의 대상은 구체적이다. 첫째로 유일한 목사이자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것, 둘째로 자신의 동역자이자 교회의 리더인 남편을 사랑할 것, 셋째로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남편과 자신이 섬기는 교회를 사랑할 것. 과연 그림 어떻게 사랑해야 하며, 그 사랑이 어떤 힘을 주는 것일까?

사역자의 아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어항 스트레스'이다. 즉, 어딜 가도 사람들의 눈을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들은 사역자의 아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그녀들에게 한다. "그래도 당신은 목회자의 아내잖아요!" 이러한 끊임없는 노출에 파묻혀 살고 기대에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잊게 된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사역자 아내들의 정체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권한다. 사역자의 아내는 자신 내면의 이상화에 대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묵상할 필요가 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를 추구한다면,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상승배가 된다. 사역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 사실 사람의 기대를 어떻게 다 충족시키겠는가? 그것을 충족시키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만약 사역 그 자체에 열매가 되면, 그 성공과 실패에 따라 영혼의 상태가 좌우될 것이다. 그것도 역시 이상승배이다.

퍼먼은 그리스도를 사랑함을 통해 이러한 족쇄에서 벗어나 자유를



The Pastor's Wife  
©amazon.com

누리라고 강조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면, 즉 그분께 기대고 의존한다면,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그분의 기대에 부응케 하는 사역에 필요한 것, 특히 사역자의 아내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것이다.

한편 퍼먼은 사역자의 아내들에게 자신의 남편을 사랑하라고 충고하면서, '돕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남편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할까?

성경은 사역자의 자질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하지만(특히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 사역자의 아내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 사역자의 아내란 그저 조용하게 뒤에서 교회 청소를 담당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남편의 사역에 참여하여, 그 사역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사역자의 아내들은, 마치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 같은 존재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원치 않아도 들리는 백색 소음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의 평가, 특히 교회 밖의 사람들의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것을 불편해하지 말고, 도리어 외인의 실 세 없는 평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회임을 기억하며(딤후 3:7), 늘 환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녀는 사역자의 아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러기 위해 그녀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꽤나 긴 지면을 할애하는데, 그 설명을 읽으면 누구라도 감동을 느낄 것이다(영원성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서로 사랑 가운데 복음을 통해 세워가는 교회에 대한, 그녀의 아름다운 서술을 실지 못해 아쉬울 따름이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교회

를 섬기기 위해 각 지체에게 은사가 주어졌다. 사역자의 아내도 역시 은사를 받았다. 이때 사역자의 아내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은사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과 은사를 주신 분의 목적을 숙고한다면, 열등감 내지 우울감의 위험(그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행위이다)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을 말한다. 첫째, 은사는 누구나 받았다. 둘째, 은사는 남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넷째,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런데 강점 내지 은사와는 별개로,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약점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의 가치임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다.

그녀는 은혜만이 그리스도, 남편과 가정,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길 고대하면서 책을 마무리 짓는다.

얼마 전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통해, 사역자의 가정이 얼마나 힘겨운지가 교회와 세간에 알려졌다. 이처럼 사역자에게는 돕는 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사역자의 아내에게 도움 힘이 없다면, 필연적으로 교회와 가정은 무너질 것이다. 필자도 목사라 그런지, 이 책을 읽고 나니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결국 누구보다 목사를 위하고 사랑이, 누구보다 목사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내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힘겨워하지만 아무 내색하지 않는, 이 땅의 사역자의 아내들을 응원하며, 그녀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사랑만이 살아갈 능력임을 일깨워 주는 이 책을 추천한다.

### ◆도서정보

제목: The Pastor's Wife: Strengthened by Grace for a Life of Love  
저자: 글로리아 C. 퍼먼 (Gloria C. Furman)은 아내이자, 네 아이의 어머니, 출산동반자(doula), 블로거이다. 그녀의 가족은 2008년 중동으로 건너가 남편이자 목사인 데이브(Dave)와 함께 두바이 리디머교회(Redeemer Church of Dubai)를 개척하였다. 가격: 11.99 달러(국내 미번역)

진규선 목사

기독교문서선교회 편집위원



성경을 돌려드립니다  
권일한 | 좋은씨앗 | 224쪽

"지금까지 수천 권의 책을 읽었지만 성경보다 재미있고 깊이 있는 책을 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수많은 책을 읽을 테지만, 성경만큼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책을 만나지 못할 거라 확신하는 성경 중독자다."

20여 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아이들과 '행복한 책 읽기'를 시도해 온 저자가, 책 중의 책인 '성경 읽기'에 대해 썼다. 위의 말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은 저자는, 첫머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빼앗겼다"고 이야기한다.

물론 성경책 자체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흥수가 나면 사방이 물바다가 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듯, 지금 우리도 성경과 기독교 서적이 넘쳐나지만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읽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말씀이 살아 있는 땅을 빼앗으며,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편협한 이야기로 전락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더지게 만들며 기독교의 진리를 매도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들이다.

저자는 교사답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언약 이야기'인 성경에 대해 간략히 개관한 후, '직접 읽고 묵상하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질문하며 읽어야' 등 9가지의 보다 구체적인 '성경 독서법'을 제안한다. 이후 '공동체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법'을 별도로 안내한다. 마지막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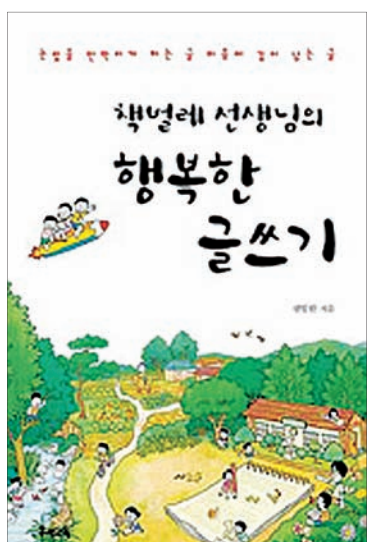
로 '책벌레 선생님'이 직접 서신서, 이야기, 시 등 형식별 성경 읽기 방법을 위 9가지 항목을 활용해 예시하고 있다.

저자는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삶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몇 번 읽었는지를 자랑한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주일과 평일이 모두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에서 멀어지고 있다"며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으로 돌아가야 소망이 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비난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가 앞서 펴낸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글쓰기>는 아이들이 자신만의 느낌과 생각을 글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법을 담았다. 그러나 저자는 '방법'은 스스로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지 못하므로, 글쓰기를 행복해하고 좋아하게 만들어야 한 두번 실패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이들의 글을 5만 편 이상 읽고 2만 편 이상 답글을 썼던 경험을 토대로,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글쓰기 노하우를 부모들에게 전해준다. 1분 글쓰기, 일기 쓰기, 시 쓰기, 주제 통합 글쓰기, 조사 보고서 등 갈래별 글쓰기 사례들과 글 다듬기까지 다루고 있다.

이대웅 기자



책벌레 선생님의 행복한 글쓰기  
권일한 | 우리교육 | 300쪽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나 투영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알뜰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213.487.0691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귀국자동차 운송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 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문의 1-877-580-2424 서울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 연구해온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핵산 배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 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PRO-Z USA Inc.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당뇨신약개발, 현 FDA임상 2차 실험진행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재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1병 \$89 3병 \$249 6병 \$474  
+tax +tax +tax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CD**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er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물티슈를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성기하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완료,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사인(상대외, 제막), 반죽공인쇄 전문  
주님미디어닷컴은 주님미디어닷컴의 모든 저작권은 주님미디어닷컴에 있습니다

전도용품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시디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지 선물을 진행, 실교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세트 \$1,000set (\$180)  
교공공용 100x150cm 10매가 들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용 및 전도용품, 선물용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시에도 방문하시어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1, 101 Los Angeles, CA 90057

**TOGO & 캐더링 원형**

**머글레 싸갈레**

오일별 음식 하루종일 **\$7.99**

연말연시 동행회 및 단체모임, 교회행사, 기독교모임 캐더링·도식

**월** 북어구 돈가스 오징어볶음 새우볶음밥 해물수제비  
**화** 타블고기 콩차구이 오리라이스 떡만두국 우거지잡채  
**수** 동태찌개 함박스테이크 피스타치오 카레라이스 유부+우동  
**목** 갈비탕 제육볶음 자반조림 소고기볶음밥 오일백반  
**금** 궁치김치 떡볶고기 민어구이 김치볶음밥 오징어찌개  
**토** 부대찌개 갈치구이 돈가스 치킨테리야끼 김밥+우동

**323.660.1004 (천사)**  
**213-598-5552** 4429 W. Beverly Blvd. LA CA 90004

주일은 쉽니다.  
타운내 신속배달 (2인분 이상)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시내· 타주이사·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Hair News Salon**  
-헤어뉴스살롱-

Hanna(헤나)  
Tel. 213-383-5916  
Cell. 213-604-2118

3450 W. 6th St. #107-A, LA, CA 90020 (Kenmore & 6th)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 인삼생리대
- 익모초생리대
-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쇼스피드 다이어트**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튜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5th St. Carson, 90015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AAPI) Faith Leaders Engage in Social Issues at the Capital Race Relations, Immigration, Human Trafficking, and Mental Illness Among Issues Discussed

The Asian American Pacific Islander (AAPI) faith community makes up a significant portion of America's population today, but it seems the community still has a distance to cover in terms of spreading awareness of its specific interests and needs to the public, having a strong voice in social issues that affect the nation, and being recognized for its contribution to the greater society.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a conference that takes place at Washington, D.C. hosted by Korean Churches for Community Development (KCCD), is one of the spaces in which the AAPI faith community is given the opportunity and platform to voice their interests and concerns, and their opinions on current issues affecting the nation. AAPI faith leaders are also able to connect with each other and with those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work together in serving the community. The eighth annual LTC took place from Monday to Wednesday this week, with various activities including panels with leaders in the government, a prayer breakfast, and a White House briefing.

Notable leaders in the public sector who were present at the summit include Jannah Scott, the Deputy Director of the Center for Faith-Based and Neighborhood Partnerships in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Mark Brinkmoeller,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Faith-Based and Community Initiatives of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iana Yu, the Advisor of the White House Initiative on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s (WHIAAPI); David Kim, the Associate Administrator of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nd Grace Choi, the Policy Advisor for the Secretary's Office on Global

Women Issues in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roughout the conference, participants discussed pressing issues affecting the nation today, including race relations, as well as issues that particularly affect the AAPI community, such as immigration, and peace and security in the Asian peninsula.

Though direct quotes were prohibited from being used in media from the White House briefing, leaders in the public sector who participated in the White House briefing as well as other panels during the summit expressed the necessity of the AAPI community voicing their concerns and opinions. Some added that the very act of the AAPI faith community gathering in D.C. to share their perspectives makes a statement to the governing leaders.

### Standing in Solidarity

Among the various issues that were discussed during the conference, the AAPI faith community expressed their own experiences of pain and frustration with systemic injustice, as well as their experiences with the riots that have ensued after the recent death of Freddie Gray.

Lovely Varughese, an Indian American woman, shared the story of her son's death, and the frustration she experienced while trying to fight for justice on behalf of her son, Pravin, who died in February of 2014. Pravin's body was found in the woods with multiple bruises and injuries, but the coroner listed his cause of death as hypothermia, and "the police suspected no foul play," Varughese said. Over a year later, Pravin's case is still open, and Varughese and Pravin's supporters are still advocating.

"It's hard sharing this painful story, but I know I need to keep



Over 100 AAPI faith leaders participated in KCCD's 8th annual Lighting the Community Summit in Washington, D.C.

fighting for this and sharing this story because I want to help prevent other families from experiencing this," Varughese said.

Priscilla Baek, a senior manager of public affairs for Mitsui & Co., shared the pain of the families who own small businesses in the midst of riots.

Baek's family owned a small beauty supply shop during the times of the 1992 L.A. Riots, and said that as a result, she felt compelled to speak about her experiences when the Baltimore riots broke out.

"We have to remember that we're in this together, and we need to work together to get out of the cycle of poverty," Baek said.

Mee Moua, the executive director of Asian Americans Advancing Justice, added that in such circumstances as these, the AAPI community standing in solidarity with other ethnic groups is crucial.

"As Asian Americans, we need to disrupt the social and racial order, and

stand in solidarity with others by finding our commonalities," Moua said.

The issue of civil rights, and the federal My Brother's Keeper initiative were also discussed at the White House briefing.

### The "Ministry of Presence"

As social issues were being discussed during the conference, one of running themes of the summit has been that of the "ministry of presence."

Mark Keam, one of the delegates of the Virginia House of Delegates in the 35th District, used the term when he spoke during the first night of the summit, saying that one of the rules to success is simply being present, and serving in whatever means in every situation.

This idea seemed to penetrate the small group discussions and panels throughout the conference. Many leaders agreed that members of the AAPI faith community have been making progress in civic

engagement thus far, but to make even greater headway, the community must be present and involved.

"Many people tend to think that someone else is dealing with the social issues, so they don't feel the need to be engaged themselves," Diana Yu said during a panel on Tuesday. "But there needs to be engagement with conviction even in civic issues. Mission is not only out there, but even within the government."

David S. Kim of the U.S. Dept. of Transportation said there would be a significant impact if the AAPI faith community held active commitment to civic engagement and public service just as much of a dominant and important part of life as the work, family, and church.

Mee Moua encouraged the AAPI faith community to host civic activities such as voter registration drives, and to show up for the Census 2020, because "when we're counted in the numbers, our voice will matter."

## "Joy Strengthens the Bond Between Parent and Child" Young Nak Couples Glean from Parenting Seminar

One of the greatest and most significant callings of a Christian is that of parenthood, as children would eventually grow to be the next leaders. As such, ensuring that children are raised up in healthy families and nurtured to be healthy followers of Christ is a significant concern for parents and churches, and churches have been vesting more attention to the nurturing of children. An aspect that undoubtedly and deeply affects the healthy nurturing of children is the very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 and the parents.

"Everyone wants a strong bond with their children," John Loppnow, the pastoral care pastor at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YNCC), said at YNCC's parenting seminar on Sunday. "And joy is what strengthens the bond."

Loppnow, who also has a background as a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 (MFT), shared several ways parents could help to keep joy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further strengthen that bond.

First and foremost, Loppnow explained that the most important aspect to maintaining joy in the parent-child bond is the joy that comes from the bond between the parent and God. Loppnow pointed to John 15:9-12, and said that one of the ways joy is maintained in the parent's relationship with God is keeping His commands.

"If there are two things that you could take away from this seminar, it should be that first, God loves you and is glad to be with you, always," Loppnow said. "And second, a true life of joy comes from following Him and putting His words into practic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n the last six months, what has the Holy Spirit been leading you to learn and grow in Him? And what about the next six months? Maybe you could even choose an aspect to grow in together as a family," Loppnow suggested, encouraging parents to continue in striving to become more like Christ and follow Him.

Loppnow also shared several

practical ideas on maintaining joy and strengthening the bonds in the family. One of the ways to maintain joy in the family bond is to understand how joy is communicated, he said. If relational joy is understood as being glad to be together with someone, Loppnow explained that that joy is expressed differently by different people.

"You could list ten things as a family on how you are going to communicate joy to each other," Loppnow suggested. "And individually, you could also list how you plan on communicating joy to the neighbors around you in the world."

The frequency and the quality of the interaction between two people is also one of the major ways through which the strength of any relationship is determined, Loppnow said. "The strength of the bond can withhold the people together through the hard times," he added.

Loppnow also mentioned a more scientific aspect that affects relationships: relational circuits (RCs). RCs are akin to switches in the brain, and once turned off, one would stop seeing other people relationally, but rather, see "other people as being in your way from achieving your goal, or see them as tools to use or manipulate to achieve what you want." When RCs are on, "you experience oth-

ers as relational beings, and you are concerned about what others are thinking and feeling. You feel the desire for connection and joy in being together."

Understanding this concept helps to maintain bonds because major conflicts tend to arise from the RCs being turned off. Loppnow shared his experiences of taking time to turn his RCs back on, or essentially, taking time to calm down in the midst of a conflict, and then coming back to reconcile afterwards. These actions to take time to calm down instead of acting out of anger also model for the children the appropriate behavior during conflict, he added.

This was the third such parenting seminar that took place recently at YNCC over the past year. The deacons in charge of the marriage and family ministries at YNCC shared they hope to have at least one parenting seminar and one marriage seminar each year. These seminars provide opportunities for couples to not only learn from seminar speakers, but also from each other, as the seminars provide time to share experiences and ideas and learn from one another. Newcomers to the church could also find that these seminars offer yet another opportunity to become more involved and connected to the church.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hosted a parenting seminar for couples on Sunday.

##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Church Pastors, VI: Serving Selflessly, Seeking Joy in Ministry

When asked about how a church could serve younger generations, Pastor Paul Lee, the current pastor of the English ministry (EM) at Potter's Community Church, focused on two main aspects: being selfless toward one another and simply enjoying ministry.

The Korean ministry (KM) at Potter's, for example, has been exemplifying selflessness toward the EM, said Lee. To show support, the KM, which has a much larger congregation, has been investing in them financially, and has been providing food at various EM events, Lee said.

He further explained that the KM has been like a parent to the EM, and that they had always been a firm supporter whenever EM needed their help. The two ministries have had many activities together, such as picnics, beach trips, and Christmas festivities. Lee said that Pastor Patrick Lim, the senior pastor of Potter's, is likely a major influence to the KM's approach toward EM.

"Pastor Lim tries to educate the first generation to sacrifice for the next generation," he said. "I think the older generation needs to show the second generation first hand what it means to sacrifice. I believe this is the Jesus way - there might no promise of return, but sacrificing first despite that."

He added that the EM also must show selflessness and humility to the KM. "Neither can demand sacrifice, but both can offer it," said Lee.

Lee explained that the KM and EM relationship is important because it is one of the factors that may affect young people's decision to stay in or leave the church. He said that young people may feel slightly uncomfortable in the presence of adults, and that when the older members of the church intentionally make an effort to show they care about and want to invest in the younger generation, it will make a difference.

"Church also just needs to be fun and exciting," he added. "Young people face so many temptations in

the world, and church could offer better alternatives to those temptations."

"It's difficult because these temptations are 'cool.' They don't understand how it has a grip on them or what it means to be truly free. They understand freedom in the sense of having the freedom to do those things, but they don't understand that true freedom is being able to say, 'I don't need those things.'"

Lee has been to jailhouses, lawyer's offices, and courthouses while serving younger people. But he said that one of the greatest joys that he has experienced serving in EM is seeing young people such as these be transformed by Christ and see them growing and thriving in Him, he explained.

Group Bible studies and sharing time, basketball, playing pool, and ping pong are among some of the activities that Lee has organized to create a space where EM members can have fun within the church, and also have fellowship with one another.

Lee added that the leadership's excitement for ministry also has an effect on the church members. Lee encouraged pastors to enjoy ministry together by developing trusting and supportive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Ministry itself is so difficult; with no partnership, it would be even more so," he said.

"When pastors and leaders are having fun, kids will naturally want to join in on the fun," he explained. "And our spiritual walk should be enjoyable."

*This is one in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astors who either serve in English ministry (EM) or have a heart for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within the Asian American church.*



#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 Green M. Wild IMAGE SYSTEMS

Sales Representative : Eric Kim

GreenMWild@Gmail.com

TEL : 213 705 7778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혜택

Used printers trade in & purchasing



KONICA MINOLTA



###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C554e Colour B&W 55/55 ppm	C454e Colour B&W 45/45 ppm	C364e Colour B&W 36/36 ppm	C284e Colour B&W 28/28 ppm	C224e Colour B&W 22/22 ppm	Dual Scan ADF 160opm Duplex	Dual Scan ADF 80opm Simplex	Emperor Driven!	USB Print	Colour Internet Fax	Mobile Support
-------------------------------------	-------------------------------------	-------------------------------------	-------------------------------------	-------------------------------------	--------------------------------------	--------------------------------------	--------------------	--------------	---------------------------	-------------------



Simitri with Blomax \*Optional : Fax & Finisher